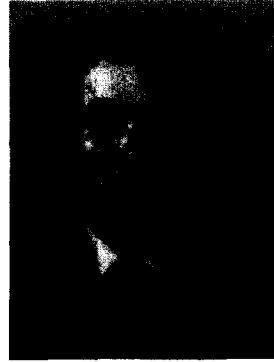


으름짱보다 조용한 법집행을...



박 창 훈

<서호주정공업(주) 대표이사>

지하철과 철도의 공무원 신분의 기관사들이 불법적으로 파업을 단행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불법을 이렇게 쉽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감행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파업이 불법임은 물론 그 위에 시민의 발을 담보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年前에도 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한때 곤욕을 치른적이 있어 반복되는 혼란과 불편에 시민들은 짜증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이 악순환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밖에도 현재 극심하게 겪고 있는 전노대와 연계된 대기업 근로자들의 파업, 그리고 조선대 학생들의 철도 탈취 행위를 위시한 극렬한 데모에 염증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불법이 쉽게 계속 자행되는 악순환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원인을 규명, 그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듯하다. 여러가지 형태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의 신봉자라 자처하는 극히 진보적인 각계의 인사들의 영향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방면되거나, 정부의 정

치적인 배려와 흥정으로 용인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방만한 법 운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즉 불법행위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그 결과로 초래되는 엄청난 국가적, 국민적 희생과 낭비, 손실이 뒤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한국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곳에서 수십년을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많은 선진 외국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도하 영자지에 掲載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연례 행사와도 같은 이러한 병적인 儀式은 이제 거둬치워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이 무르거나 법이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게 되고 불법의 악순환은 계속되게 마련이다. 한 나라는 선량한 백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님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啓導와 독려가 필요함은 물론 때로는 채찍이 필요한 것이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 우리는 그 같은 관행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월남전 反戰示威가 기승을 부리던 60년대 미국에서도 극렬한 학생들의 시위는 무력으로 진압되었던 전례와 경험이 있다. 즉 캔트 스테이트 대학 학

생들의 극렬한 시위는 경찰의 힘으로 수습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 방위군이 동원되고 진압 과정에서 급기야 수명의 학생들이 방위군의 총탄에 희생 되고서야 시위가 진정된 경험이 있다.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태였으나 선진국 미국에서도 때로 전체사회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81년 8월 레이건대통령 재임시 미국의 항공 관제사들은 전국적인 파업을 단행하여 미국의 전 항공운항을 마비시켰던 적이 있었다. 법원은 불법파업을 하던 관제사들에게 즉각적인 직장 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자신들 없이 항공운항이 불가능 하리라 판단한 관제사들은 법원의 명령을 묵살하고 파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레이건대통령은 萬難을 무릅 쓸 각오로 직장복귀를 거부한 수백명의 관제사를 전격 파면 조치하였고, 외부로 부터 새로운 관제사들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었다. 그들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파업은 자연 불법이 되었고 대통령은 그들을 즉각 파면 조치 할 수가 있었다. 수백명의 파면조치는 당시 항공운항의 상당한 어려움과 항공여객에게 큰 불편을 주었으나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난관 극복의 노력은 결국 그 파면조치의 정당성과 불법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결과로 나타나 그후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자제되었다.

상기한 조치는 미국의 시장경제의 논리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즉 노동력이 원료, 자본과 함께 생산의 3대 요소인 만큼 노동력의 가격도 결국 시장 원리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 노동법의 기본 정신이다. 다른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파는 자는 어떤 가격이하로는 팔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반면 사는 자에게도 다른데서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노동력의 시장도 공정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노동자의 팔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단체행동권과 파업권은 노동운동

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시장이 형성, 유지되기 위해서는 勞에 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使에도 勞가 提示한 가격이 너무 비싸면 다른데서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權利가 보장 되어야 한다. 즉 勞의 단체행동권과 使의 조업 계속권을 모두 보장함으로써 양측의 이익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결국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다. 그가 여러가지 형태의 인권운동을 하여 미국 흑인들의 인권 신장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가 인권 운동을 하던 시절 1960년대의 미국의 많은 법은, 특히 일부 남부 州의 法들은 흑인을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았던 극단적인 악법들이 많았다. 그는 그러한 악법을 어기지 않고는 도저히 인권 신장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많은 법을 어기고 흑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을 찾아 주는 운동을 했던 것이다. 그는 법의 제재를 받을 각오를 한 의도적인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그는 그 법에 의해 감옥에 갇혔던 것이다. 그는 동정하는 진보적인 판사에 의해서 방면된 적도, 또는 정치적인 배려와 흥정에 의해서 형이 면제된 적도 없었다. 당당히 합당한 벌을 받고 풀려 날 수 있었을 뿐이다. 우리도 대의를 위한 결과의 고통은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며, 법이 제대로 공정하게 운용되기를 바란다. 지난 날 한혹 갈등을 촉발했던 사건으로 두순자 사건이란 것이 있었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던 흑인 소녀를 두순자라는 한국교포 여인이 살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순자 여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판결과 다름없는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즉 판결에 불만을 품게 된 뉴욕의 흑인들은 한국인 청과물 시장을 보이콧하게 되었다. 그 정도가 아주 심하여 거의 장사를 못하게 방해했었던 것이다. 이에 한국인들은 뉴욕시 당국에 허가를 받고 일정

장소에서 시위와 규탄대회를 열 수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그 때 그 장소에 모인 한인들은 거의 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질서 정연한 규탄시위를 모두 마치고 해산하였다. 시위가 있었던 그 장소에는 담배꽂초하나, 휴지 한장, 오물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워졌다고 한다. 그날 경찰관과의 마찰이나 그 밖에 어떠한 불상사도 없이 대단히 모범적인 시위로 마쳤던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뉴욕시에서 개최한 어느 집회, 어느 시위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시위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시당국이나 관계당국으로 부터의 찬사와 칭찬을 받았다. 미국의 집시법은 대단히 엄격하여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 엄수되지 않고 시위가 장소 이탈등의 법을 어기면 곤봉 세례는 물론이고 만에 하나 시위가 난동으로 변할 경우는 총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지방의 기업인으로 지역에 주둔한 미군과의 교분이 있어, 우리는 가끔 미군기지를 방문하게 된다. 기지는 미국의 작은 축소판이다. 따라서 기지내 도로에는 여러가지 교통표지판이 있게 마련이다. 정

지, 양보, 제한속도등 일상적인 것들이다. 우리들에게 감지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전주나 청주 같은 중소도시 시내의 좁은 길을 질주하는 감각의 속도 보다도 훨씬 느린 속도로 주행을 해야만 그곳의 속도 표지판의 제한 속도를 지킬 수가 있다. 비행장 기지, 허허 벌판에 차량도 별로 없는 네거리에는 불필요한 듯하게 보이는 정지 표지판이 가끔 있다. 기지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들의 기사들은 우선 주의사항을 듣게 된다.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교통위반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곧 바로 쫓겨난다는 주의를 듣게 된다. 그 곳에서 우리는 제한속도, 일단정지, 양보 등 제반 교통법규를 딱 잘 지킨다.

법이 제대로 공정하게 운용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교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사례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백번의 으름장이나 협박성 성명 발표 보다는 조용한 법의 공정한 집행만이 불법행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공염불과 같은 으름장은 이제 제발 그만...

A man who does not lose his reason over certain things has none to lose.

어떤 일에 분별력을 잃지 않는 사람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Gotthold Ephraim Lessing—